

# 글로벌캠퍼스 설립 첫 발걸음

# 옥정호 출렁다리 벚꽃축제 개최

## 남원시, 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매입 계약 체결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의 첫 시작인 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남원시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융복합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

우고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1월 남원시와 전북대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되고 폐교된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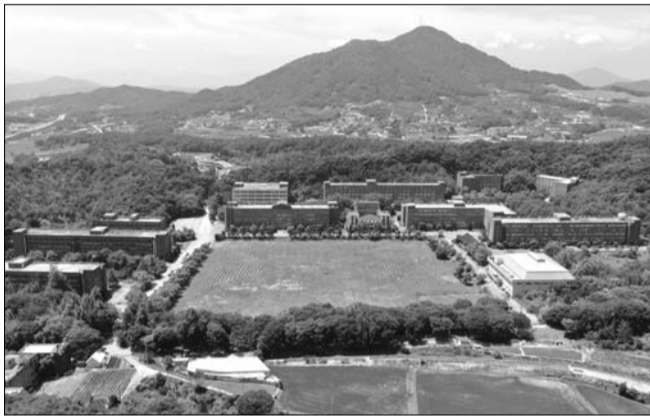
이러한 남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원글로벌캠퍼스는 성공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등 시의원들과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매입 예산 205억원을 편성했고, ‘(학)서남학원 청산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9일 수의계약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날 2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의 주춧돌을 마련했으며, 2027년까지 총 604억원을 투입,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과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설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창업 입주기업 근로자 등 2,000여 명의 인구가 남원시에 유입되고,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산업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남원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사진=남원시청 제공)

# 순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7개 관련 조례 개정 확대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

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지리산농협,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평가 ‘우수’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2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자 종합평가에서 ‘지리산농협’이 전국 19개소 중에서 4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 주관하는 산지육성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 선정 및 선진지 연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총 10억원(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의 사업비로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지리산농협은 2022년도 포도 품목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생산비 절감(유인방제기), 품질관리 부분(포도 중량자동조절선별기, ERP 시스템, 폐지압축기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SNS 페이스북·유튜브 등 4개 채널 소문내기 이벤트 홍보

임실군이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첫 번째 벚꽃축제를 앞두고 관광객 몰이를 위한 SNS 이벤트를 뜨겁게 전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옥정호 벚꽃축제 개최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2일 현재 이벤트 게시글은 조회수 1만여 회, 좋아요 700여 개, 100여 개의 댓글 등이 달리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옥정호 출렁다리 및 옥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관광객 몰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임실군 SN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소문내기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임실 산양유 요거트(2종)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축제가 끝난 후인 4월 8일 임실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벚꽃축제는 옥정호 드라이브 길을 화려하게 장식할 벚꽃나무들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옥정호, 물이 가득 차올라 스릴감을 더하는 출렁다리, 향긋한 봄꽃 내음으로 가득한 봉어섬 생태공원이 더해져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옥정호만의 특별한 봄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옥정호 드라이브길은 옥정호의 맑고 깨끗한 호수와 자옥한 물안개가 어우러져 더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봄이면 옥정호 순환도로 내 가득하게 피어있는 벚꽃 나무의 향연과 주변 숲이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연출하는 덕분에 벚꽃 명소로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3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만능트롯돌 김희재, 천태만상 윤수현, 중년들의 대동령 요요미, 땃다땃어 영기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개막을 축하하고, 상춘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진=순창군청 제공)

# 순창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본격 운영

순창군이 처치가 곤란한 영농부산물 폐기 문제를 대안 파쇄해 주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수가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했으며 파

쇄장비는 임대사업소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등 파쇄지원단 추진에 자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 신청자는 파쇄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쇄 작물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하며, 이물질 등을 미리 제거해 놓고 파쇄 처리 후 파쇄물 등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063-652-7091)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2월까지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순창군은 지난 22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순창읍 양지천 일대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공무원 및 직원들 20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모았다.

이번 행사의 주목적은 이미 아름다운 이팝나무 길로 유명한 순창읍 양지천변에 새로운 볼거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붉은색 꽃이 아름다운 명자나무 6,000주를 심었다.

특히, 이번엔 식재된 명자나무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 식재된 7,000주의 명자나무와 어우러져, 하천 경사면 양쪽에 붉은 꽃이 만발하는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나무 심기와 더불어 하천변 쓰레기 줍기 활동에도 참여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아동 비만예방교실

임실군이 지난 2월 20일부터 관촌 동그리미지역아동센터에 ‘빠른 키속속 아동 비만예방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오수기 지역아동센터 5개소의 아동 105여 명에게 실시하고 있다.

아동 비만예방교실은 1개소당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참여하여 나의 비만도 알기, 체성분 측정, 신체 계측을 통해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교육을 실시한다.

건강 스트레칭 및 체조 등 놀이교육과 편식 예방 및 컬러푸드 알기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내 건강증진팀과 연계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 전달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다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 전주매일 캠페인